

WAY 2 DRAGON (FULL DESCRIPTION)

누드 퍼포먼스이자 다큐멘터리인 WAY 2 DRAGON은 말레이시아의 수도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쿠알라 룸푸르는 곰박 강이 클랑 강과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는데, 이는 ‘호린 합류점’이라는 도시의 어원에 걸맞는다. 이 도시의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들과 달리, 클랑 강은 그 어떤 여운도 남기지 못한다. 전한 악취가 풍기는 이 강에는 매년 약 170,000 톤에 달하는 배설, 오물, 화학 약품 등이 유입된다. 이러한 불운으로 인해 클랑 강은 말레이시아에서 오염된 강으로 다섯손가락 안에 꼽힌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강 재건 운동에 영감을 받은 해당 지역 및 국가 정부는 2012년부터 클랑 강의 수질과 주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했다. 약 13억 달러 (한화 약 1.5조 원)의 투자액을 등에 업은 ‘생명의 강 (River of Life)’ 프로젝트는 역사상 가장 비싸고 광범위한 도시 재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여 쿠알라 룸푸르를 홍콩, 상해, 싱가폴과 같은 동남아 경제 지구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겠다는 포부를 공공연히 내비쳐왔다.

아티스트가 2019년 2월 초에 쿠알라 룸푸르를 방문했을 때,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90% 이상 진행되었고 완공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였다. 도시 주요 지역을 빼뚫는 클랑 강의 대부분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신하여 명소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이나타운 근방은 보수 공사가 막 시작되던 참이었다.

홍수의 급습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 강변 지대는 유달리 훼손되어 있었다. 이 불쾌한 광경은 그 어떤 사람의 접근도 반기지 않았다. 눈에 거슬릴 정도로 가라앉은 포장도로는 심지어 쓰레기로 덮혀 있었다. 왕도마뱀들은 바로 이 무너진 지대를 강과 도로를 잇는 완만한 경사로 사용했다. 실패한 도시 공학과 자연 재해가 맞물리는 이곳에서 왕도마뱀들은 숙식을 해결하고 수영과 일광욕을 즐기며 공사 요원들을 구경하기까지 했다. 집을 차린 것이다.

이 거대한 파충류들은 그들만의 자치구역을 확보했다. 비장소에서 서식지로 거듭난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은 장소만들기의 수행성을 잘 보여준다. 이 왕도마뱀들이 제공하는 개체-환경 관계의 한 예시는 우연하고 인위적이다. 야생과 문명의 양극화에 반하는 이들은 정작 인간이 정착하기에 어려운 도시 공간에 적응했다. 이러한 모순은 야생을 근대 문명의 외부로 배치시키는 시도에 다음과 같이 묻는다: 과연 문명의 보호 하에 있는 이들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전적으로 야생의 책임인가? 육체적 그리고 철학적 오염의 가능성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다.

비디오에서 대비되듯, 왕도마뱀은 보통 습지와 늪을 자연적 서식지로 삼는다. 하지만 안전지대를 벗어난다고 하여 그들의 포악함이 힘을 잃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 멱성좋은 동물들은 크기와 관계없이 인류의 상상 속에서 용이 누리는 특수한 위치에 도전할 수 없다. 용과 같이 강인하고 미신적인 존재들이 인간 사회로 하여금 인류 고유의 취약함과 마주서게 하고 겸손함을 갖추게 하는 반면, 이 곳에 터를 잡은 도마뱀들은 인류가 용에게 부여하는 무력의 일부만을 행사할 뿐이다.

기회주의적인 왕도마뱀들은 이런 면에서 용으로 항하는 길 (way to dragon)에 있다. 이들은 용의 상징성에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으나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왕도마뱀들은 기껏해야 현지인들에게 이 도시는 인간만을 품는 생태계가 아님을 알린다. 퇴거의 위협이 가까워져도 왕도마뱀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버티며 (way to drag on) 인류세의 행진에 맞서는 방어선을 유지한다. 비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들의 서식지를 철거하려는 인류세의 행진에 맞서.